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7〉

怡山然禪師 發願文 (이산연선사 발원문) ①

歸命十方調御師 演揚淸淨微妙法
귀명시방조어사 연양청정미묘법
三乘四果解脫僧 願賜慈悲哀攝受
삼승사과해탈승 원사자비애섭수
但某甲 自違眞性 枉入迷流
단모갑 자위진성 왕입미류
隨生死而飄沈 逐色聲而貪染
수생사이표침 축색성이탐염
十纏十使 積成有漏之因
십전십사 적성유루지인
六根六塵 妄作無邊之罪
육근육진 망작무변지죄
迷淪苦海 深溺邪途 着我貪人 擧枉措直
미륜고해 심익사도 착아탐인 거왕조직
累生業障 一切愆尤
루생업장 일체건우
仰三寶以慈悲 瀝一心而懺悔
앙삼보이자비 력일심이참회

시방의 부처님과 진리를 펼쳐 보인 청정미묘법과

삼승(성문·연각·보살)·사과(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의 해탈승께 목숨바쳐 귀의하노니 원컨대 자비를 베푸사 가엽게 여겨 한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

다만 제가 참 성품을 어기고는 미혹의 흐름(무명)에 굽어 들고,

이 세상의 복과 명은 각기 원하는 대로 창성하고

내생에는 지혜의 종자, 신령한 보리의 묘목이 빼어나게 자라기를 한가지로 희구하나이다.

生逢中國 長遇明師 正信出家 童眞入道
생봉중국 장우명사 정신출가 동진입도
六根通利 三業純和 不染世緣 常修梵行
육근통리 삼업순화 불염세연 상수범행
執持禁戒 塵業不侵 嚴護威儀 蜎飛無損
집지금계 진업불침 엄호위의 용비무손
不逢八難 不缺四緣
불봉팔난 불결사연
般若智以現前 菩提心而不退
반야지이현전 보리심이불퇴

태어남에는 이 땅에 나서 두고두고 눈밝은 스승을 만나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되 동진(색을 알기전 15세이하)으로 도에 들게 하소서.

(또한) 육근이 밝아 이치에 통하고 신·구·의 삼업이 깨끗하고 가즈런하며 세속 인연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행을 닦게 하소서

금계를 굳게 지켜 털끝만큼도 침범치 않으며 행주좌와 중에 위의를 엄히 지키고 기어다니는 미물·나는 벌레의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으며

"집착하고 분별한 업장·허물 참회 하오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청정행 닦게 하소서"

생사를 따라 회오리바람처럼 돌며 색·성을 좇아 탐하여 물들고,

십전십사로 유루의 인을 쌓고(몸과 마음으로 항시 번뇌와 악업을 지어 고해를 드나드는 인연을 쌓아 올리고)

육근육식으로는 망녕되이 끝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고해에 빠지고, 삿된 길에 빠져들고, '나'에 집착하고, 남(상대)을 분별하고 바른 길은 버리고 굽은 길만 찾아 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생에 지은 업장과 일체의 우심한 허물을 삼보의 자비를 우러러 빌며 일심을 기울여 참회하옵니다.

所願 能仁拯拔 善友提携
소원 능인증발 선우제휴
出煩惱之深源 到菩提之彼岸
출번뇌지심원 도보리지피안
此世 福基命位各願昌隆
차세 복기명위각원창륭
來生 智種靈苗同希增秀
래생 지종영묘동희증수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건져주시고 선지식이 손잡고 도와주사

번뇌의 깊은 흐름에서 벗어나 보리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옵시며

(불법을 대면키 어려운) 여덟가지 난을 만나지 않고 (바른법을 익히는) 네가지 인연에 빠짐이 없어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고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修習正法 了悟大乘
수습정법 료오대승
開六度之行門 越三祇之劫海
개육도지행문 월삼지지겁해
建法幢於處處 破疑網於重重
건법당어처처 파의망어중중
降伏衆魔 紹隆三寶
항복중마 소륭삼보
承事十方諸佛 無有疲勞
승사시방제불 무유피로

바른 법을 익히고 닦아 대승법을 깨달아 마치고

육바라밀의 행을 쉬지 않아 삼아승지겁을 넘도록 계속하며

곳곳에 법당을 세우고 천겹만겹의 의심을 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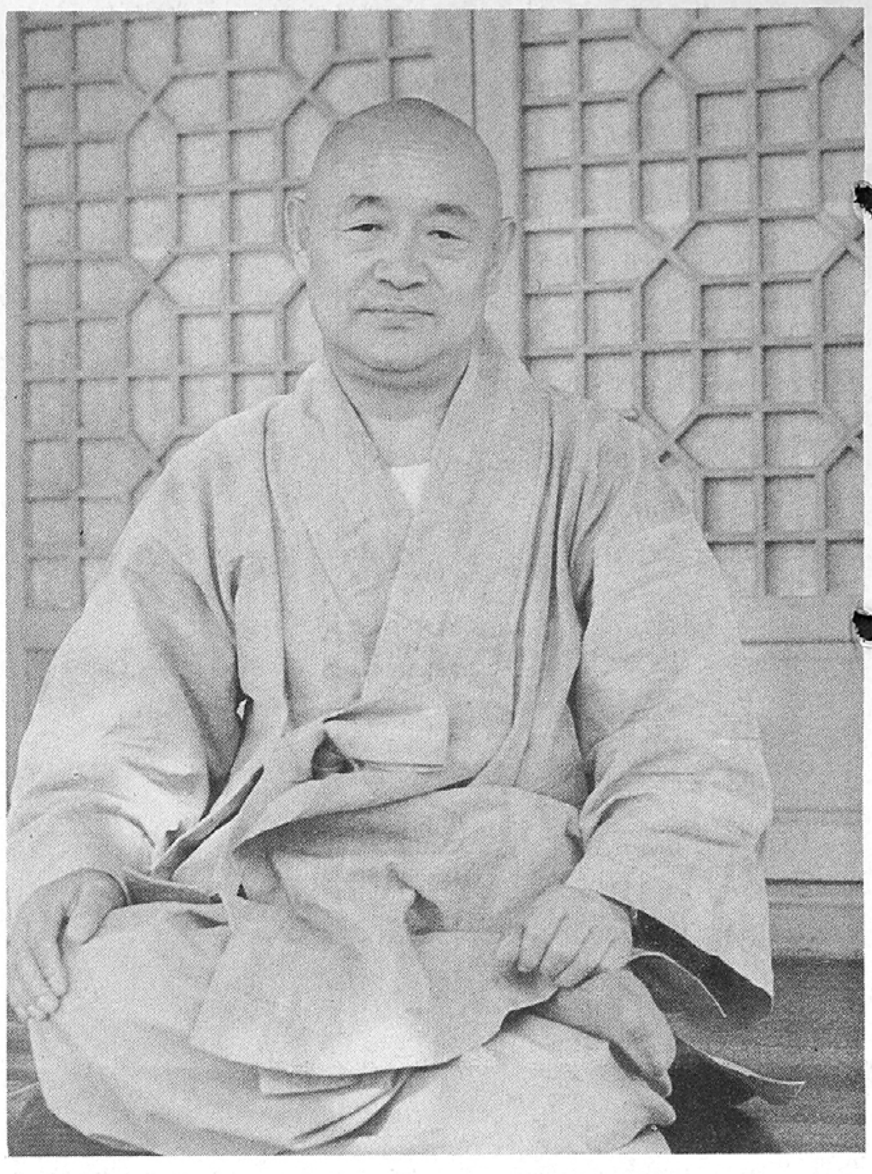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삼보를 널리 번성케하며

시방제불을 섬기고 또 섬김에 조금도 피로함이 없게 하소서. 龍眼

지상법석

"욕심하나 단속 잘하면

이두스님 〈청주관음사 주지〉



약력

- 1945년 법주사에서 금오선사 은사로 출가득도
- 불교승가대 대교과,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방글라데시 치타공 팔리대학에서 〈금강경의 공성의 연구〉로 철학박사
- 현대시조시인협회 부회장, 해동불교 대학 학장

종교는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이라는 간단한 정의(定義)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성질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다함께 믿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한 민족에 국한한 종교, 한 부족에 국한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꼭 신(神)이 있어야 한다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신과는 아무 관계없이 유일한 목적을 갖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삼세인과(三世因果)를 믿고 자기자성(自己自性) 깨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남의 뜻에 의지하며 어떻게 되고 되어가는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지은 업(業)에 의지하여 과보(果報)를 받는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의 책임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때로 무엇이 있다고 보는 것은 미신(迷信)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원시신앙(原始信仰)은 무격(巫覡)이라고 합니다. 여러 무당과 남자 박수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네들은 신명(身命)을 모두 스스로가 믿는 신에게 맡기고 오직 태어날 때도 신의 점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할 것이며 괴롭게 살거나 즐겁게 사는 것이 모두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의 헛점은 사회의 적응체제로서의 이론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열강(熱强)은 마치 광신자(狂信者)와 같습니다. 혼신(渾身)의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불교는 삼세인과 믿고 자성 깨침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따라 과보 받는 것이니 남의 뜻에 의지하는 어리석음 버리십시오"

부처님은 마음밖에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믿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뇌와 망상, 집착이 공(空)하고 보면 외부의 경계는 본래 실재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공한 이치를 발견하면 이것은 일체가 무애한 본래경지가 체득된다고 합니다. (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내심에 집착이 생겨나서 일체환상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는 미신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미망의 사지(死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더라도 잘못된 스승을 만나 외상(外相)에 집착해서 염불을 한다면 어쩌다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집착의 결과로 일어나는 환상에 매혹되어 광신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하여 색채만 불교지 실제는 부처님 뜻에 역행하는 신도가 부지기수며 이를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런 맹신을 시급히 정리해야만 됩니다. 잘못 믿는 무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명(教名)을 들고 또 감화력마저 충실하여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인류 전체에게 마땅히 제시해야 할 비전(Vision)은 불법밖에 없고, 불법중 정법이 있을 뿐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현장을 떠나 일체사가 처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묻기를 어떻게 공부를 지어 나가야 하며 누구에게 의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물었을 때,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를 말씀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법을 광명으로 삼고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까닭에 일체의 생사와 윤회가 생긴 것인데 자기를 잃고 남에게 팔려 구원과 광명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 경계를 잘못 알고 경계에 속고 있는 그릇된 행위로, 자기를 잃고 경계에 집착함으로 끝없는 윤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루에 열번 변하는게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탐(貪) 진(瞋) 치(痴) 세가지 마음이 근본됩니다만 여기로부터 뻗어 나가는 마음의 갈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백팔번뇌 팔만사천가지 번뇌로 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 많은 번뇌 망상이 쌓이고 덮인 속에서 살고 죽고하는 습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최초의 원인은 모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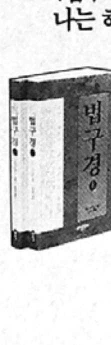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드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받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432면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잡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 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조 MATZU — 달마대사의 거보(巨步)를 잇지른 마조선사의 빛나는 족적!
조주 JOSHU — 인간이라는 돌덩이로부터 붓다를 조각해 내는 훌륭한 장인정신의 소유자 조주의 선과 명상의 세계!
임제 RINZAI — 고금을 통하여 선(禪) 어록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임제선사의 생생한 육성의 가르침!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